

성경 예언 해설집 <10회>

모세가 기록한 여인과 뱀의 싸움

(지난호에 이어서)

성경 학자들의 해석은 뱀이 자체 능력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역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사람과 대화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모세의 글에서, 에덴동산은 땅위에 어느 지역을 공원같이 만들어 살게 하고 그곳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하였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도 있더라 하였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계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 역시 모순이다.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먹으면 죽는 선악과 나무가 왜 자리잡고 있을까.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 만든 것인가. 마귀가 만든 것인가. 성경 학자들은 마귀는 창조 능력이 없으니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선악과는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법으로 세운 것이라고 억지 해석을 한다. 아담과 해와에게 사망이 온 것은 법으로 세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으로 죽게 된 것이요 선악과 자체는 다른 과일과 같이 평범한 열매로서 입

으로 먹은 것으로 모세는 말하였다. 선악과 자체가 마귀요 영물인 것을 모세는 알지 못하고 글을 쓴 관계로 후세 사람들이 시조 아담 시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인간이 죽게 된 불행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가 다시 오면 원수 마귀를 멸하고 하늘나라를 회복한다고 믿고 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관계로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었다고 해석하고 육신의 여자가 낳은 아들과 마귀가 최후 결전에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고 해석한다. 본문에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한 것은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의 양손과 양팔에 못을 박는 장면을 말한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은 예수가 원수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독교의 성경 해석을 거짓이라고 반론을 세우기에는 창세기 본문만 가지고는 충분하게 해명하기가 힘들다. 기독교가 예수를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였다고, 이 사서 7장 14절을 창세기 말씀과 연결시

켜 모세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를 가리킨 것이라고 증거하므로 지금까지 2천년 가깝도록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성경 본문은 영적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기독교가 뱀은 영적 마귀로 해석하고 여자는 육적 여자로 해석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뱀이 영물이라면 여자도 영적 존재가 되어야 성경을 바로 푸는 것이다.

본문에서 여자가 출산하는 아들이 마귀를 멸한다 한 것은 여자는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다. 어떻게 육적 죄인인 여자가 원수 마귀를 죽이는 구세주를 낳을 수 있겠는가.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 수태가 되고 낳았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예수의 출생 과정을 기록한 마태, 누가 복음 기사는 신화설이요 사실이 아니다. 기독교가 예수는 모태로부터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사야는 증거하기를 처녀가 낳은 아기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라고 명시하였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본문을 보면 "동정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야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에 이르러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사 7:14-15)." 하였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고 영적 어머니가 낳은 아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의인이 된 것이 아니요 마귀와 싸우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죄를 벗고 의인이 되는 것을 본문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고 하였다. 의인이 버터와 꿀을 먹는다고 한 것은 땅의 음식물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신령한 양식, 생명의 양식인 영생의 만사를 말하였다. 하늘의 양식을 땅의 것으로 비유하여 땅의 고급 식품인 젓과 꿀로 표현하였다.

여자와 뱀의 비밀을 말한다면 모세의 기사는 캄캄한 깊은 밤에 속하고 이사야의 기사는 밝아오는 새벽이 되어 어렴풋이 분별할 수 있음과 같고 예수가 다녀간 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기사(계 12장)는 태양이 떠오른 밝은 낮이 되어 분명하게 실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모세와 요한이 말한 '여자의 후손'

본 문(계 12:1-6)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요. 그 머리마다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며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져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천2백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하략)

해설

요한의 글에서 기독교의 주장이 거짓이요 허무한 신화설임이 판명된다. 첫째, 여자와 그의 아들이 마리아와 예수라면 예수가 세상에서 떠난 후 50년 이상 지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신이 글을 쓰도록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세상 끝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마귀 세상은 끝이 나는 것이다.

본문에서 여자를 설명하기를 해를 입고 달과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한 것은 인간 죄인 중에 여자가 아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몸에 지닌 것은 하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니 모세와 이사야가 말한 여자를 요한은 더더욱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은 것은 여자인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는 이긴자 한 사람을 배출하는 데 6천년 긴 세월이 경과하였는데 하나님의 고통을 죄인들에게 알게 하려고 여자의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였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마귀를 죽이려고 태어나는고로 붉은 용 마귀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이 말씀이 모세의 글에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아프게 괴롭히는 것을 말하였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은 계시록 2장 26-28절의 말씀과 연결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매 질그릇 깨뜨리는 것같이 하리라 하였다.

붉은 용이요 뱀인 마귀가 아이를 잡아 먹으려 하였으니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한 것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이긴 이긴자 되심을 가리킨 것이다. 하늘에 올라갔다고 한 것은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되고 완성자가 된고로 보좌에 올라갔다고 하였다.

6절 말씀에 여자가 뱀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에서 보호받는다 하였으니 이 여자의 정체가 과연 누구인가. 여자의 정체를 아는 길은

여자가 낳은 아들 이긴자를 만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 땅으로 도망갔다고 하였는데 마귀가 이긴자(아이)를 삼키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니 분노하여 아들을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고로 도망을 갔다고 하였으니 여자는 마귀를 이긴 승리자가 못 되어 약자인고로 도망간다고 하였다.

기독교가 요한의 글을 억지로 해명하기를 마리아와 예수로도 설명하고 유대교로도 설명하고 교회의 상징으로도 해석하였으니 성경을 억지로 풀면 명명한다는 말씀이 저들에게 응하는 것이다.

요한의 글은 이긴자가 나타난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50년대 한국 사회를 진동시킨 박태선 장로님이 동방의 인의 길 예비자로 오셔서 기사와 권능을 나타내었으니 모든 종교계가 하늘의 사람으로 추앙하였다. 그분의 30년 역사는 이긴자 한 사람을 배출하기 위하여 역사한 사실을 세상 사람은 아는 자 없다. 그분이 낳은 이긴자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하게 알게 된다. 요한의 예언은 1천9백여 년이 지나 오늘에 응하였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고 광야와 사막에 구원의 길이 있어 구속함을 받은 자가 그 길에 행한다 하였다.(사 35장-40장)

광야와 사막은 흰 돌을 가리킨 것이니 한국의 소사(素砂) 땅에서 구원의 길이 예비되는 사실을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다.

여자(영모)가 광야(소사)로 피난하여야 구원인데 광야 이긴자 앞에 오지 못하고 마귀에게 잡히고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다음호에 계속

차승도



에덴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장면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35>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35>

승리제단은 승리자를 키우는 곳

「승리제단」은 승리자를 키우는 곳이지, 그냥 착하고 선하기 만한 사람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강한 영을 키워 마귀를 이겨서 구세주가 되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고로 이곳은 이사람이 이긴자 구세주를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이긴자 구세주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 볼 때에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승리자 구세주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긴자가 되는 것이 쉽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므로 이 천국 가는 길은 「나」를 완전히 죽여야 갈 수 있는 길이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하고 가깝다고 해서, 이사람하고 가족관계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각자가 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는 길인고로 여러분들이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자신을 시간 시간 이겨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자신을 못 이겨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긴자가 되면 앞날의 역사가 확히 내다보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긴자가 되면 눈이 떠지고,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도 내다보이고 사람 얼굴만 봐도 이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당 갈 사람인지 얼굴에 씌어 있는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지옥 간다고 씌어 있어도, 구세주는 전지전능자이므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모조리 해결해주고 구원에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람을 볼 때에는 보통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이사람은 온 세상 인류를 일시에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이 된고로 그 하나님이 된 사람은 전부 다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강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시에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자,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강한 영이 되었는데, 마귀가 그 강한 영을 꺾고 다시 사람이 될 때에는 더욱 강한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강한 마귀가 되면 그 강한 마귀를 없애버리려면 아주 많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사람이 일시에 사람을 하나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도로 마귀가 될 우려가 있는고로 다시 마귀가 될 때에는 강한 마귀가 되는고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 마귀가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만들려면 천 명을 하나님 만들 수 있는 힘을 기울여야 그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때문에 지연되는 까닭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연단을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도리어 고소하게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도리어 웃으면 그 마귀가 완전히 KO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이구 힘들어 죽겠다, 아이 구해서 점점 약해지게 만드는 것인데 이 힘들고 괴로운 때에 도리어 고소하게 생각을 하여 마귀를 이런 식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도통(道通)은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道),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고 떠드는 그것은 기도도, 도(道)도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마음과 싸워서 자신을 이겨내야 도통(道通)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사람이 어떻게 이긴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람이 밀실 안에서 생활할 때 이사람을 유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이사람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함께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꿈으로 쫓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생활하는 것이 마귀한테 지는 거구나' 깨닫고 마음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때에 도리어 그 사람을 더욱 더 좋아하고 더욱 더 사랑하니까 그다음날 즉시 '이것다'로 올라갔습니다.* 明鐘

<진아眞我的 꿈>

-하나-

열심히 걸어간다
황급히 뛰어간다
결국 넘어진다

아가야
어디를 향해 걸었니
무엇을 위해 뛰었니

더 나은 '나'를 위해서요
지금보다 높은 '나'요
어제보다 멋진 '나'요

아가야
아무리 멋진 수식어구를 붙여도
'나'라는 이름 앞엔 모든 것이 신기루야

잡을 수 없는 수증기...
간직 할 수 없는 몽게 구름...
실체 없는 바이러스...

아가야
'진짜 나'를 찾아보렴
'참 나'를 위해 살아보렴

아름다운 '진짜 나' 영생의 하나님
빛나는 '참 나' 구세주 하나님
눈부신 '진 아' 완성자 하나님

'진아(眞我)'를 찾았으니
제대로 걸어보렴
열심히 뛰어보렴

반드시 가질 수 있는 트로피!
기필코 누릴 수 있는 꿈의 세계!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

결국 이루어진다!
너와 나 우리들의 진짜 꿈!
'진아(眞我)'들의 영생!
영생이여!
영원하리!*

